

2019 새 설계

유근기 곡성군수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로 군민이 행복한 곡성 만들 것”



“군민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곡성의 역사를 써내려 가기 위해 한 치의 주저함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최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두려움으로 군정을 시작했지만 역사를 향해 문을 두드린 횡수만큼 세상은 풍요로워졌고 곡성은 성장했다”며 “군민 행복을 위한 역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 군수는 기해년 새해맞이 일성으로 ‘군민 행복’을 꼽았다.

온전한 삶터로서 곡성 100년 대계로 그가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다. 그러면서 ‘3개 권역별 특성에 맞는 앵커(anchor)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곡성읍권은 4년 연속 한국관광 100선(選)에 빛나는 섬진강 기차마을과 기차당 뚝방마켓, 주말장터와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맛과 멋이 넘치는 감성과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고, 옥과권은 청년 인구 유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게 그의 그랜드 비전이다.

또 석곡권은 꾸밈없는 자연과 흑돼지를 기반으로 힐링과 먹거리를 중시하는 최근의 여행 트렌드에 맞춘, 자연과 로컬문화가 살아있는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이어 “미래교육재단과 미래교육협력센터를 설치해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창의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곡성형 교육 비전도 언급했다.

3개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스마트팜·곡성형 시설하우스 개발
읍권 150가구 공공임대주택 조성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좋은 교육이 없다면 사람들은 곡성에 정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에서다. 마을교육 공동체를 활용한 창의교육은 그가 찾은 해법 중 하나다. 재단과 센터를 컨트롤타워로 학교혁신과 마을교육, 곡성곰놀이, 농촌유학 등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아우르는 ‘포용적 복지’도 이어간다. 유 군수는 “아이들은 동일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며, 드림스타트를 통해 상담을 비롯해 아동발달에 필수적인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곡성읍과 옥과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은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게 기본구상이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전문자격증 취득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읍권에는 15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옛 오곡초등학교에는 청년과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든다.

관광산업 육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시민이 찾아오는 낭만과 힐링의 문화관광자원을 만들어 곡성군의 경쟁력을 키울 예정이다.

특히 섬진강과 대항강 수변을 레저문화관광벨트로 연결해 도보여행, 자전거, 래프팅 등 자연을 즐기려는 도시민들의 방문을 유도한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업도 추진한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대기오염 측정망을 구축해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환경오염센터를 개설, 환경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빼놓을 수 없는 분야다.

유 군수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지구 구조 변화가 영농환경에도 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위해선 농축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직불금 지급 확대, 친환경경제보험 100% 지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상향(70-90%),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목표액 100억원으로 상향, 스마트팜 조성과 ‘곡성형 시설하우스’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곡성하면 떠오르는 토란과 멜론도 품질 향상과 판촉, 유통망을 강화해 전국적 명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군수는 “공직자의 청렴은 행정에 대

2019년도 주요 사업은

-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위해 3개 권역별 앵커(anchor)사업 추진
- ▲미래교육재단과 미래교육협력센터 설치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창의교육
- ▲아이부터 어른까지 소외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포용적 복지
- ▲도시민이 찾아오는 낭만과 힐링의 문화관광자원 기반 구축
-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군민 건강 지키기
- ▲농업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실현
- ▲깨끗한 공직 문화와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감동적인 행정 실천

한 신뢰와 직결된다”며 “명예청렴감사관제를 내실화하고, 내부인사망에 설치한 청렴신문고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군민 행복지수 1위’라는 목표에 따라 하루하루 새로운 이야기로 2019년 채워가겠다”며 “말한 것은 반드시 행하라는 ‘유언실행(有言實行)’의 의미를 되새겨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고 약속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올해 광양매화축제 드론으로 생중계한다

개화 상황·축제현장 실시간 보여줘

올해 3월 15일 열리는 전남 광양매화축제의 생생한 모습이 드론으로 생중계될 전망이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 광양매화축제는 3월 15~24일 열흘간 다압면 매화마을에서 ‘매화꽃 전국, 여기는 광양!’을 주제로 열린다.

올해는 4차산업의 꽃인 드론을 이용해 개화 상황과 축제현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축제현장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생중계한다.

꽃 키우는 농사꾼 홍상리와 섬진강 시인 김용택, 소리꾼 장사익이 나와 특별한 토크 콘서트도 연다.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둔치주차장-행사장 가로수길(1km) 개설과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중마동-행사장 시내 순환버스

와 광주터미널 임시 고속버스 확대를 검토 중이다.

여기에 더해 수월장-하동 섬진강에 ‘화합의 부교’를 설치해 하동에서 행사장까지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부교 위에서는 광양시와 구례군, 하동군 주민들의 영호남 화합과 상생을 위한 ‘연어 치어 방류 행사’를 개막행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도로변 불법 야시장 단속에 집중하고, 노점상 구역에는 공공버스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 힐링축제에 큰 방해가 됐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화엽 광양시 관광과장은 “올해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보다는 교통체증과 번잡한 야시장 등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축제 효과가 확산할 수 있도록 흡수판 판매 등 전략적인 홍보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항 전기야드트랙터 개발사업 혁신 우수사례 선정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이하 공사)는 광양항에서 추진된 ‘전기야드트랙터 개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광양항 전기야드트랙터 개발 사업’은 공사가 항만 내 온실가스 저감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컨테이너 이송 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전기로 전환하고자 실시한 사업이다.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광양항 전기야드트랙터. (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이 사업으로 전기야드트랙터 1대당 연간 약 2400만원의 연료비 및 소모품비 절감과 연간 23t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가 있으며 진동·소음·배연 감소로 작업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사는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서호전기(대표이사 김승남)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 개발에 나섰으며 지난해 5월에는 전

기야드트랙터 개발을 완료하고 시연회를 가졌다.

공사 관계자는 “광양항에는 105대의 야드트랙터가 운행 중에 있어 순차적으로 개조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완료시 연간 약 25억원의 연료비와 2415t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게 돼 광양항이 저탄소형 그린포트(Green Port) 구현에 보다 더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 백운산 고로쇠’ 25일부터 판매

광양시는 ‘광양 백운산 고로쇠’(사진) 수액을 25일부터 채취,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를 등록한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인체에 유익한 무기질이 다량으로 함유돼 있고, 게르마늄 성분이 다른 지역의 고로쇠 수액보다 많아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는 품질 유지를 위해 정제 과정을 거친 수액만을 시중에 유통, 판매하고 있다.

0.5 l와 1.5 l, 4.5 l 등 소포장 용기를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에서는 지난해 380여 농가가 112만 l의 고로쇠를 채취해 34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Nikon

한계 없는 마운트 혁신의 시작
풀프레임 미러리스

Z

찍고 싶은 것들을 완벽히 담고 싶다는 당신의 생각에 니콘이 혁신적 풀프레임 미러리스 Z를 제안합니다.

NIKKOR F 렌즈*와 호환이 가능한 55mm 마운트로 모든 순간 경이롭게 표현되는 당신의 크리에이티브.

이것이 바로, 시대를 앞서나가는 니콘의 기술력입니다.

CAPTURE TOMORROW

고해상도 풀프레임 미러리스 Z 7

올리온마운트 풀프레임 미러리스 Z 6

| NEW - Z 풀프레임 시스템 | NEW - Z 마운트 & NIKKOR Z 렌즈 | NIKKOR F 렌즈 호환* | | QUAD VGA EVF (3.6M화소 전자뷰파인더) | 이미지 센서 시프트 방식 5축 VR | *렌즈에 따라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니콘이미징코리아 0619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14층 [대치동 892] TEL. 080.800.6600 FAX. 02.2026.0029 www.nikon-image.co.kr